

# 學生 啓蒙隊의 動員을 機會하야 「啓蒙」이란 무엇이나

-歷史와 人間에 關한 斷想[제1회, 全3회]

申南澈

「人間은 本來 自由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는 到處에서 鐵鎖에 억매어 있다」고 저 偉大한 十八世紀의 佛蘭西 思想家「루소-」는 社會 契約論의 冒頭에 말하엿 엿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有名한 말입니다. 내가 더 說明을 加하지 않드라도 스스로 理解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事實로 人間은 여러 가지 鐵鎖에 억매어 있습니다. 歷史를 뒤져기어 보고 目前의 現實을 바라볼 때 오-얼마나 많은 그巨□한 鐵鎖들이 우리 人間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겿습니까. 그러면 그 鐵鎖는 무엇이며, 또 어떠한 하면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잇을가? 이 크나 큰 課題의 解決을 □當할이는 오직 人間뿐 입니다. 우리들 自身입니다. 今番의 夏期 學生 啓蒙 運動에 參加하는 數千의 學生諸君 들도 그 鐵鎖를끊는 큰일의 한 모퉁이를 떠맡는 戰士들입니다. 나는 이 粗雜한 글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드리랴합니다.

## || 젊은煩悶! ||

젊음의 자랑! 우리는 젊습니다. 數千數萬의 學生여러분들-당신들은 바야흐로 피라는 꽃봉오리입니다. 활작 필 明日을 約束하고잇는 젊은 여러분이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젊은이만치 당신들의 가슴에 불타고 잇는 가지가지 생각이 人情없어도 당신들의 天真한 밤잠을 깨치고 잇는 것은 아닐가요. 이래불가 저래 불가 하는 向方 못 잡을 생각들이 오고 가고 또 와서 고치지 않겠지요. 행여나 遲刻할가하고 거름을 재촉할 때에 휘끈 본 處女의 얼굴을 그리며 책에다가 얼굴을 파묻는 것 일가요? 닥쳐 오는 試驗工夫가 귀찮아서 이리저리 덩굴면서 조바습 하는 것 일가요? 아닙니다! 斷然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 젊은煩悶은

떡 깊고 크고 또 몹시도 아픈 것일 것입니다.

假使 당신들은 그것을 □□하고 잊지 않을지는 모른다하더라도 당신들의 그 이 생각 저 생각의 말미암아 오는 바를 따져본다면, 당신들의 그 煩悶은 卽 朝鮮의 煩悶입니다. -당신들은 天真한 詩人들인것입니다.

詩人!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詩人이라고 한다면 「處女之花環」이나 「黃浦江의 갈매기」나를 노래 부르는 것이나, 아닐가 할는지 모르지만 실상인즉 지금까지의 朝鮮의 詩人이라고 하는 분들의 大部分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못한 先人見을 넣어 주었습니다. 「粉紅빛 사랑」이나 「금잔디 노래」나를 읊프고 지었다고, 그러케 쉽게 詩人이 되어서야 참말 詩人들은 어굴하 다할걸요!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저 英國의 셸리, 키-쓰, 獨逸의 로사, 하이네, 露西亞의 푸쉬킨, 에세-비 등을! 그들은 대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젊었을 때에 법서남유 다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들의 眼界는 넓고 또 높았습니다. 目前에 있는 적은일보다 사람이 마땅이 가져야 할 權利와 秩序에 눈떴었습니다. 그리 하여 먼 將來를 내다보는 □眼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의 煩悶보다 못하지 않게 괴로워 하였고, 目前의 形便에 滿足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 하여 그들은 放浪도 하였고, 亡命도 하였고 또 客死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正當한 秩序와 人間의 自由를 爲하여 불덩이 같은 熱情에 북바쳐 있었 습니다. 目前에 있는 내일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 人間의 權利와

### 社會의 秩序를

이리저리 궁굴리어 생각하여 보았고, 따져서 批判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몸소 나섰습니다. 그 權利와 그 秩序를 爲하여 스스로 내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내 自身을 더 잘 살리고 또 크게 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먼저도 말한바와 같이 自由이어야 할 사람에게 三重四重으로 얽혀 있는 그 무서운 鐵鎖를 끊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卽 제自身을 몇 겹으로 묶고 있는 鐵鎖까지도 끊어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든 것입니다.

젊은 당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煩悶! 그 煩悶으로부터 당신들이 解放되 자면 당신들이 지금 朝鮮의 學生이라는 處地를 忠實히 自覺하고 履行함에 依하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록 적다고는 할지라도 그 知的 財寶를 나누어주기를 苦待하고있는 百千萬의 兄弟와같이 지내는 것에 依하여 그 第一階段의 實現을 볼 것입니다. 自由로워야할 人間의 가지가지 鐵鎖中에서 가장 悲慘하고 苦痛인것은 無知의 鐵鎖입니다. 그러한 鐵鎖를 鐵鎖인줄 모르고 있는 그들은 따라서

그 悲慘하고

苦痛인 處地

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現實을 바로 보는 눈이 감기 어져 있습니다. 오직 動物的인 苦痛과 素朴한 八字타령이나 하고 잇을 뿐인것이니, 어찌 가엾지 않으며 딱하지 않습니까! 그가 엮고 딱한 모양은 그들의 것인 同時에 우리 젊은 學生들의 것입니다.

아 그 鐵鎖를 고리 고리 끊어 헤칠 勇士는 그 누구인고! 보면서도 모르고 들으면서도 모르는 그들에게 知識을 주어야 겿습니다. 그리 하여 그들의 人間으로서의 權利와 自由를 깨닫게 하여 주어야 겿습니다. 中世紀의 어떤 哲學者는 「無知의 知」를 말하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아는 것은 힘이며(스치엔티야에스트.포렌티아)또 그것은 至上의 原理인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신들의 知識을 그 아는 이만치 苦痛의 鐵鎖에 매어 잇는 그들과 나누어 가지며 그리 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鐵鎖를 끊는 第一步를 내드디도록 協力하여 주어야겿습니다.

啓蒙이란것은

卽 이것입니다.

우리는 于先 啓蒙이란것은 이것이라고 알아 둡시다. 당신들은 勇士입니다. 당신들의 젊은 煩悶은 이일을 通하여 解決에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잇을 것입니다. 「粉紅빛」아니고 空想이 아닌 젊은煩悶-그것은 참으로 값 잇는 것입니다. 큰 자랑입니다.

